

우리말 담화표지 ‘막’ 고찰

김영철(전북대학교)

1. 서론

본고는 우리말 담화표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 ‘막’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¹⁾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는 음성이나 문자를 일컫는데 음성언어는 말소리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의 결합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언어 집단 속에서 태어나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 집단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엄청난 정보가 생산, 유통,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 개인이 가지는 언어의 표현력과 이해력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보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남

1) 최현배(1989:587-604)는 ‘막’을 풀이씨의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가 어머하게 들어남을 보이는 어찌씨 가운데 때의 점을 보이는 때 어찌씨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고, 서정수(1996:460-463)는 ‘막’을 순간, 일정한 시간적 분기점 따위 비교적 짧은 시간 범위에 걸친 위치 지정을 하는 시점/순간 부사어로 설명하고 있다.

의 생각과 정보와 감정을 제대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자세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 상호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화자, 청자, 화제, 상황, 메시지' 등이 필요하고, 발화의 내용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구조적, 통사적 특징도 필요하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타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는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과 맥락에 따라 특정한 낱말의 반복 활용, 생략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명제적인 정보나 의미가 없으며 담화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언어형식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담화란 담화상황에서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언어표현으로 화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말은 일정한 화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락을 이루면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쓰인다.

일상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담화표지의 사용이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장애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담화표지가 화·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그들이 속한 언어사회에서 지역,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담화 상에서 화·청자의 담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²⁾

요컨대 담화표지란 발화의 전달에 관여하는 언어형식이다. 의미적 차원에서는 특별한 어휘적 의미가 없어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작용하지 않는 언어수행이며, 화자가 어떤 화제를 표현하거나 발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심리적인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만 규칙적인 문법 기능은 없는 언어형식이다. 즉 의미적 결속을 위한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화용론적 측면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의하여 좀 더 담화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주

2) 담화표지는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실현됨을 살필 수 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즉 '감탄사, 관형사, 동사, 대명사, 부사, 용언, 조사' 등의 품사들이 담화표지로 실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나 절 즉 '동사구나 문장' 등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는 기능을 한다. 통사적인 차원에서는 문장 내에서 출현 양상도 상당히 자유롭고 비규칙적이며 수의적이다. 그러나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다.³⁾

우리말 가운데 많이 쓰이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 ‘막’에 대한 개별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막’에 대한 연구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연구원(2002)에서 발간한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통계를 보면 ‘막’은 부사로서 ‘바로 지금’의 의미를 가진 경우 54 개의 개수와 122회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사용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39회, 대본에서 24회, 구어에서 14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구’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29 개의 개수와 198회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사용 양상은 구어에서 거의 대부분인 159회와 문학에서 8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즉 부사 ‘마구’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구어에

3)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iffirin(1987)에서 담화표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로서 발화의 단위를 묶어주는 요소이다”고 하였는데 발화의 단위란 화행 뿐만 아니라 문장과 그 보다 작은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처음이나 중간 또는 끝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서 담화표지의 의미는 발화문의 내용과 결합하여 사회적 또는 표현적 의미를 제공하면서 담화에서의 연결적 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한규(1996)에서 담화 표지어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 또는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말하는 이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이다”고 밝히고 있다.

임규홍(1996)에서 모든 담화표지는 그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기원적 어휘의미를 가져오 하면서 그것이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면서 점점 상당히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복잡한 담화효과를 가진 담화표지로 변형된 것으로 보면서 담화 문법론 차원에서 논의되는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담화(일말)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다. 즉 담화라는 독특한 실현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 즉 형태적으로 접사가 결합되거나 어형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셋째,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즉 담화표지는 문법적으로 다른 성분과 결속하지 않는다. 넷째, 쓰임에서 공간적·계층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즉 어떤 담화표지가 성별이나 연령, 다양한 사회적 계층, 그리고 공간적으로 두루 쓰인다. 다섯째, 사용이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담화표지가 아무리 임의적일지라도 그것이 담화 상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담화표지는 분명 어떤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째, 나름대로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한다. 일곱째, 모든 담화표지는 원래 어휘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영욱(2002)에서 담화표지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영옥(2001)은 담화 표지의 기능을 화제와 화제 결속, 화자와 화제 결속, 화자와 청자 결속 등으로 나누고, 그 중 화자와 화제 결속의 기능이 '부정적인 태도 표현하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규홍(2003)은 성별에 따른 담화 표지 종류의 실현 비율을 언급하고 있다. 담화표지 '막'의 사용에 있어서 남성은 4위, 여성은 5위로 그 실현 빈도나 비율 및 순위에 있어서 비슷함을 살필 수 있으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성 담화표지인 '딱, 막, 참'은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성적이고 섬세한 일반적 성향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최지현(2005)은 담화표지 '막'의 기능 연구에서 젊은 화자들의 대화를 전사한 자료를 텍스트로 삼아 '막'이 가지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살폈다. 담화표지의 기능으로는 첫째,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기능, 둘째, 전경과 후경의 경계 표시, 셋째, 선행발화의 생략 기능, 넷째, 발언권의 유지 기능, 다섯째, 화자의 심리적 태도의 표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안정아(2008)는 담화표지 '막'의 의미와 기능적 측면에서 구어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막'의 문법화 양상 및 담화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막'은 화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하는 기능. 청자의 끼어들음을 방지하고, 청자에게 화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화자의 발화를 유지시키는 기능.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표시하면서 후행 발화가 새로운 정보임을 청자에게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담화표지 '막'은 국어사전에서 부사로 언급되어 있으나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그 개별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막'에 대하여 그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담화표지로서의 '막'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살피고, 3장에서는 담화표지 '막'이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장은 결론으로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담화표지인 '막'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

료를 대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녹음이나 녹화 또는 전사된 문헌이나 문학 작품 등을 활용하여 특정 언어의 사용양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화자, 청자, 시간, 공간, 상황 등이 긴밀하게 결합된 요소로서 그 표현 자체가 어휘, 의미, 통사적인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실제적으로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방언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의 문자화된 구어 텍스트와 대중매체인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⁴⁾

본고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 빈도수가 많은 담화표지 ‘막’에 대한 개별 담화표지 연구에 일조하고, 또한 우리말 구어의 특징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담화표지로서의 ‘막’의 특성

2장에서는 문장 상에서 사용되는 부사 ‘막’과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 ‘막’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막은 문장 상에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 한다. 부사는 각 용언이나 동사구, 관형사구, 다른 부사구, 그리고 절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하며 그것들의 서술 내용이나 정도를 여러 가지로 한정하는 수식어를 말한다. ‘막’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그때, 바로 지금’과 ‘마구’의 준말로 ‘몹시 세차게, 아주 심하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등의 의미를 가지며 뒤에 오는 성분을 수식한다.⁵⁾

(1) 가. 막 출발하다.

나.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막 떠나고 있었다.

다. 슬퍼서 막 울었다.

라. 막 지껄이다

예문 (1 가)에서 ‘막’은 시간상으로 ‘바로 지금’을 의미하며 바로 뒤에 오는

4) 구어는 ‘뉘어와는 다르게’ 축약, 생략, 자유로운 어순, 방언, 은어’ 등 음성 언어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가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맥락적인 차원에서 상황에 맞는 의미를 교환할 수 있다.

5)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을 참고하였다.

서술어인 ‘출발하다’를 수식하고 있고, (1 나)의 ‘막’은 ‘바로 그때’를 의미하며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떠나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1 다)의 ‘막’은 ‘마구’의 준말로써 ‘아주 심하게’를 뜻하는데 매우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1 라)의 ‘막’은 ‘아무렇게나 함부로’를 의미하며 상식이나 사회 통념에 반하는 말을 마구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의 수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막’은 담화표지로서 기능을 한다. 부사 ‘막’은 구어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문장 상에서 부사의 수식 기능을 하지 않고, 출현 위치도 상당히 자유로우며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그 본래의 의미를 갖지 않는 화용적 특성을 보인다. 즉 부사에서 담화표지로 기능이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⁶⁾

- (2) 가. 또 그 사람들이 뭐 뭐 정부 돈도 막 그냥 여 뭐 거시기 이 거시기 돈을 막 먹고 이래 이러잖아요.<무주. 10210>
 나. 또 그 사람들이 뭐 뭐 정부 돈도? 그냥 여 뭐 거시기 이 거시기 돈을? 먹고 이래 이러잖아요.

예문 (2 나)의 예문은 (2 가)에서 사용된 ‘막’을 생각하였지만 문장의 의미와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화표지 ‘막’은 문장 구성에 있어서 필수성분이 아니고 독립성분이기 때문에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수식을 받지 않기에 생각이 가능한 잉여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은 부사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예문 1)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예문 2)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화표지는 형태상 불변화 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으며, 문장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발화의 처음 및 중간과 끝에 쓰일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른 담화표지와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막’도 이러한 담화표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막’은 형태상으로 불변화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은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사업 중 2005년 전북 남원과 2006년 전북 무주지역의 방언조사 자료의 일부인 구술발화 부분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3) 가. 막 출발하다.

나. ?막이/막기/막에서/막에서/막을/막를/막으로 출발하다.

다. ?막은/막도/막이나 출발하다.

예문 (3 가)의 담화표지는 형태적으로 고정성을 지니기에 (3 나)의 예문과 같이 조사가 결합되거나 또는 (3 다)의 예문과 같이 보조사와 결합이 어색하기에 다른 형태로 대치되지 않는다. 즉 담화표지가 문장이나 담화 상에서 활용이나 곡용을 하면 비문법적이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막'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분이다.

(4) 가. 부잣집들하고 그런 데는 옛날에는 만사가 많았잖아 막 아마 없는 집에는 그 만사 명전하고 공포하고 세가지만 있었고.<무주. 10220>

가. 부잣집들하고 그런 데는 옛날에는 만사가 많았잖아 ? 아마 없는 집에는 그 만사 명전하고 공포하고 세가지만 있었고.

나. 관리 안하고 내버려 두면 막 소나무 풀이 많이 우거져 그 사람 들어가도 못해요? 안 그런가요?<무주. 10226>

나. 관리 안하고 내버려 두면 ? 소나무 풀이 많이 우거져 그 사람 들어가도 못해요? 안 그런가요?

다. 요즘은 막 그 가면 사진 놓고 뭐 만들어 놓았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어요?<무주. 10246>

다. 요즘은 ? 그 가면 사진 놓고 뭐 만들어 놓았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예문 (4 가'-다')의 문장에서는 '막'을 생략하였지만 문장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화표지 '막'은 필수성분이 아니고 독립성분으로서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수식을 받지 않기에 생략이 가능한 잉여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막'은 발화의 처음, 중간, 끝에 쓰인다.⁷⁾

7) 담화표지가 사용된 문장의 위치나 문맥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 (5) 가. **막** 가시가 붙고, 새라고 **막** 크게, 우리에게로 **막** 거시기하면 **막** 한 길 되고, 뭐 거시기할려면 한 길도 넘고 그랬잖아요.<무주. 10603>
- 나. 그런데 저 배골이라고 그런데 산골 산골짜에 산골짜에 가면 말이 **막**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일귀서 비탈지고 **막** 이렇게 소도 못 갈로, 바위 저말이 **막** 바위도 이렇게 큰 큼한 것이 있잖아.<무주. 10607>
- 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이제 **막** 흙으로 덮고 막 띠로 덮고 해갖고 **막** 불을 **막**.<무주. 10402>

예문 (5 가, 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표지 ‘막’은 발화의 처음 및 중간과 끝에 두루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담화표지가 주로 발화의 처음에 출현하는 것에 비하여 ‘막’이 출현하는 위치는 매우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담화표지 ‘막’은 발화의 처음 및 중간과 끝에 사용하는 자연스런 언어형식으로 담화표지가 발화의 처음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특성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넷째, ‘막’은 담화표지의 반복 사용이나 다른 담화표지와 연속적인 사용에 의하여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적인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 (6) 가. 그러면 사람이서 어디 **막** 돌아다니잖아 이제, 우선 **막 막** 뛰면서 뛰면서 그럴 것 아니야.<무주. 10602>
- 나. 그런데 뭐 지금 재벌가 말이여, 그 돈 그렇게 많은 사람도 그래도 돈을 막 더 벌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뭐 정부돈도 **막 그냥** 여 뭐 거시기 이 거시기 돈을 막 먹고 이래 이러잖아요.<무주. 10201>

예문 (6 가)의 경우에는 담화표지 ‘막’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말 할 내용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였고, (6 나)의 경우에는 다양한 담화표지를 함께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화시키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의도가 있는 언어형식임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의 특성을 첫째, 형태상 불변화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는 경우, 둘째, 문장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셋째, 발화의 처음 및 중간과 끝에 쓰일 수 있는 경우, 넷째, 반복과 다양한 담화표지와의

연속 사용 등에 의하여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막'은 일반적인 담화표지가 가지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담화 상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담화표지 '막'의 담화기능

3장에서는 담화표지 '막'의 담화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담화표지는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한 언어표현으로 화자와 청자, 담화의 상황, 그리고 담화표지가 사용되는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양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화제를 전개하거나 또는 발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형식으로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⁸⁾

3.1. 출현의 위치

담화표지 '막'은 출현의 위치가 자유롭다.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인 발화의 첫머리에 오는 것에 비하면 어중과 어말에도 자연스럽게 분포하기에 출현의 위치가 상당히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다.⁹⁾

- (7) 가. 요즘은 막 그 가면 사진 놓고 뭐 만들어 놓았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남원. 10246>
- 나. 요즘 같은 데 보면 그 막 그 장례식장 가면 꽃 많이 보내잖아요?<무주. 10220>
- 다. 방에 이제 가지도 안하고 이제 마당에다 불을 이렇게 나무를 막 철야나 무라고요<무주. 10220>
- 라. 지금같이 막, 어디 그냥 막, 관에 가서 막, 그렇게 한 집이 어디 있어<무주. 10230>

8) 본고에서 사용한 '막' 중에는 부사와 담화표지 '중간기능'을 갖는 예문들도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9) 전영옥(2001)에 의하면 담화표지 '막'은 억양 단위의 시작, 중간, 끝에서 모두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생각의 흐름 단위인 억양 단위와 관련된 담화표지가 담화 연결자로서 발화와 발화 자체의 연결 및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청자와의 상호 작용의 흐름도 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문 (7 가)의 예문에서 ‘막’은 발화의 처음에 나타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화제의 시작이나 또는 주의 집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7 나)의 ‘막’과 (7 다)의 ‘막’은 중간과 끝에 나타나 선행 발화에 대한 보충이나 경계 표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7 라)의 경우에는 발화의 처음, 중간, 끝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여타의 담화표지는 일반적으로 발화의 첫머리에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화표지 ‘막’은 발화의 처음 및 중간이나 끝에 두루 사용하는 매우 자유스러운 출현의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다양한 담화표지와의 결합 관계

담화표지 ‘막’은 다양한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로우며 생산적이다.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담화표지로서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의 양상이 쉽고 다양하게 활성화 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¹⁰⁾

- (가) 가. 또 그 사람들이 뭐 뭐 정부돈도 막 그냥 여 뭐 거시기 이 거시기 돈을 막 먹고 이래 이러잖아요.<무주. 10201>
- 나. 부엌에도 이제 그 여기가 막 거시기하면 거미줄이 막, 이렇게, 옛날에는 거미줄이 아주 많아 지금보다요.<무주. 10608>
- 다. 이 방에다가 막 거시기를 이렇게 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날아서 해놓은 놈을 막 이렇게 새롬새롬 놓고, 막 탁 둘러싸갖고 막 사흘인가 여하튼 며칠인가 방에 다 그렇게 띄워.<남원. 10402>
- 라. 그래 그냥 막 그냥 붙잡고 떠는게는 호랭이가 어떻게 큰 놈이 와서 쪽 빠드러 지더라 <고산면 578>
- 마. 지금같이 막, 어디 그냥 막, 관에 가서 막, 그렇게 한 집이 어디 있어 <무주. 10203>

예문 (8)에서 담화표지 ‘막’과 결합할 수 있는 다른 담화표지를 살필 수 있다. (8 가)는 ‘막’ 다음에 ‘뭐, 거시기, 이’ 등 감탄사, 대명사, 관형사 등과 결합이

10) 개인의 언어습관에 따른 언어형식이기에 이를 정형화시키거나 통사적인 측면을 언급하기에 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고 (8 나)에서는 ‘이제, 그, 여기’ 등 부사, 관형사와의 결합이며, (8 다, 라)의 예문은 부사와의 결합으로서 각각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볼 수 있다. (8 마)에서 ‘막’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하여 화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강조’의 의미를 갖는 언어표현으로 청자에게 사용되는 언어형식임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담화표지 ‘막’은 다양한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로워 생산성이 높은 언어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3.3. 담화기능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 ‘막’은 담화 상에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살필 수 있다.

선·후행 발화의 경계 표시, 선행 발화의 보충 설명,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집중 기능, 시간 별기 등의 다양한 담화기능을 살필 수 있다.

3.3.1. 선·후행 발화의 경계 표시

담화표지 ‘막’은 화제나 담화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알리는 언어 형식으로서 기능을 갖는다. 즉, 담화에서 선행 발화는 화자의 목적인 핵심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정보를 보여 주고, 후행 발화는 선행발화의 보조 수단으로서 구정보의 성격을 지닌 설명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9) 가. 그 이제 종이 뜨는 데를 가보면 이놈을 이렇게 담귀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막 이런 몽둥이로 막 이렇게 두드려썩네 이렇게 막, 그 두드려썩면 그 놈이 이제 그 빨간 것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씻으면 빨간 거서기하고 이제 속 껍질 하얀 것 그놈만 나와요.<무주. 10607>
- 나. 폭 꺼지면 거기가 막, 뚫으면 연기기 폭폭 올라오지, 그래서 방 꺼진다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다 이제 솔을 죽 걸어놓고 이제 방에서 막 나무를 때잖아.<무주. 10602>
- 다. 총 동원해서 이제 많이 사람이 막 이십명이 되든, 삼십명이 되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식전에 막 좌우간 캄캄한, 날도 안 새서 막 가요. 이제.<무주. 10602>

예문(9 가)의 내용은 삼베를 짜기 위한 준비단계인 닥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을 언급한 내용으로 ‘막’을 중간 중간에 사용하여 화자가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한편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고, (9 나)의 ‘막’과 (9 다)의 ‘막’ 역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신정보의 선행 발화와 구정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후행 발화의 경계를 알리는 언어형식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막’은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선행 발화와 구정보의 성격을 지닌 후행발화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담화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알리는 언어형식으로 사용됨을 살필 수 있다.

3.3.2. 선행 발화의 보충 설명

담화표지 ‘막’은 앞선 발화의 내용에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부연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내용을 보충 또는 부연 설명하는 담화표지로서 ‘막’을 사용하여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0 가) 사람 **막**, 서너너덧이 이제, 삼 이렇게 삼에다가 이제 저 끄나풀을 이렇게 제기, 옛날에는 지개꼬리라고 그랬고, 끄나풀 달고 하나는 삼 들고, 양쪽에서 둘이 **막**, 흙을 많이 이기니까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막**.
<무주. 10602>

나. 그런데 저 배골이라고 그런데 산골 산골쪽에 산골쪽에 가면 밭이 **막**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일귀서 비탈지고 **막** 이렇게 소도 못 갈로, 바위 저 밭이 **막** 바위도 이렇게 큰 큼한 것이 있잖아.<무주. 10607>

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느스름하니, 자잘하면서도 곱게 큰 놈 있고, 대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나무가 **막** 울퉁불퉁 울퉁불퉁 **막** 겹가지가 많이 나고 **막** 그렇게 된 놈이 있고. 그렇게 되어.<남원. 10402>

예문 (10 가)에서 ‘막’은 흙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보충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10 나)에서도 ‘막’을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산골짜기에 있는 밭이 지형도 험하고 농사짓기에 어려운 밭이라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0 다)의 ‘막’

역시 앞선 발화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내용을 강화 또는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막’은 선행 발화를 내용을 강조 또는 보충이나 부연을 함으로써 선행 발화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3.3. 주의 집중

담화표지 ‘막’은 담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인 ‘주의집중’ 기능을 한다. 즉,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발화 내용을 보다 호율적으로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 (11) 가. 부잣집들하고 그런 데는 옛날에는 만사가 많았잖아 막, 아마 없는 집에는 그 만사 명전하고 공포하고 세 가지만 있었고.<무주. 10220>
나. 처음에 불이 났다고 불났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짝 모여서 펌프 그놈 가지고 막, 그런 것 막 도랑에 가서 이제 물 그냥, 거기에다 퍼다가 이렇게 부으면<무주. 10608>

예문 (11 가)에서 담화표지 ‘막’은 옛날 부자집과 가난한 집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언급하면서 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11 나)의 ‘막’은 불을 끄기 위하여 여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가 전달하려는 강한 의도가 담화표지를 활용하여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언어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화자가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담화표지 ‘막’이 사용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11) 화자는 청자에게 화제 및 담화 내용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함으로써 화자가 추구하는 발화의 목적이나 의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할 수도 있다.

3.3.4. 시간 벌기

담화표지 ‘막’은 담화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후행 발화를 생각하기 어렵거나 또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막’을 사용하여 시간 벌기의 기능을 담당한다.

(12) 가. 그러면 그럴 때, 그 **막**, 그렇게, 집은 아니고 알곡식 위이 이렇게 **막** 지푸라기 같은 것 있는 것.(남원. 10326)

나. 아 구덕에 한참 **막** 말하자면 이제 내일까지 품앗이 하려면 오늘 저녁에 나 담가야 해<남원. 10402>

다. 이 방에다가 **막** 거시기를 이렇게 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날아서 해놓은 놈을 **막** 이렇게 새롭새롭 놓고, **막** 탁 둘러싸갖고 **막** 사흘인가 여하튼 며칠인가 방에다 그렇게 띄워.(남원. 10402)

예문(12 가)에서 ‘막’은 담화가 진행되는 발화의 중간 중간에 나타났는데 특정 사물에 대하여 어휘가 생각이 나지 않기에 이를 보충 설명 하면서 ‘막’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다음 발화의 내용을 생각하고 조합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나)에서도 ‘막’과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담화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하여 시간벌기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12 다)에서도 ‘막’을 중간 중간에 적절히 사용하면서 후행 발화 내용을 적절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막’은 담화 상에서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담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짧은 시간에 적절한 후행 발화의 내용을 생각하기 위하여 담화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간벌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담화 상에 나타나는 담화표지는 단순하게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언어 형식이 아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다양한 우리말 담화표지 중 담화 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담화표지 ‘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담화표지는 일상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화·청자가 속한 언어사회에서 지역, 사회, 문화적으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인 색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담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어형식이다.

담화표지 ‘막’은 빈번하게 담화 상에서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달리함을 엿볼 수 있다. ‘막’은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리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막’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담화의 결속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언어형식임을 살필 수 있다.

담화표지 ‘막’의 담화기능은 첫째,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 표시’의 기능으로,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선행 발화와 구정보의 성격을 지닌 후행 발화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담화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알리는 언어형식으로 사용된다. 둘째, ‘선행 발화의 보충 설명’의 기능으로, 선행 발화를 내용을 강조 또는 보충이나 부연을 함으로써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주의집중’의 기능으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담화표지 다음에 언급되는 후행 정보 및 발화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흥미,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넷째, ‘시간별기’의 기능으로, 담화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후행 발화를 생각하기 어렵거나 또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막’을 사용하여 시간 별기의 기능을 활용한다. 이는 담화 상에서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담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짧은 시간에 적절한 후행 발화의 내용을 생각하기 위하여 담화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간별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요컨대, 부사의 기능을 가진 ‘막’은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연구원(2003), 현대국어사용 빈도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김영철(2008), 국어담화표지 '자' 고찰, 국어문학45집, 국어문학회.
-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구어연구(2),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신지연(1988), 국어간투사의 위상연구, 국어연구83, 국어연구회.
- 안정아(2008), 담화 표지 '막'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학 40집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표지어 '그래'의 의미연구, 담화와 인지3,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1996), 국어담화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인지2,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2003),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표지 사용 모습, 어문학 83호. 93-113. 한국어문학회.
- 임규홍(2005), 국어 담화 표지 '자'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 전영옥(2001),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전통화법과 화법교육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역락.
- 최지현(2005), 담화표지 '막'의 기능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현배(1989), 우리말본, 정음사.
- Schiffrin(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국문초록】

본고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부사 ‘막’에 대한 특성과 함께 담화표지로서 담화 상에서 어떠한 담화기능을 담당하는가를 고찰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담화표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사로서 ‘막’의 특성과 함께 부사 ‘막’이 담화표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담화표지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3장에서는 담화표지 ‘막’의 출현의 위치와 다른 담화표지와의 결합관계,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기능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막’의 담화기능은 ‘선·후행 발화의 경계표시 기능,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집중 기능, 후행 발화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벌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부사의 기능을 가진 ‘막’은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핵심어: 담화표지, 담화기능 구어, 발화

【Abstracts】

A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 of 'Mak' to discourse marks in Korean language.

Kim, Young-cheo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a characteristic of 'Mak' as an adverb and the function of it as a discourse mark in everyday Korean language.

'Mak' function as an adverb in sentence, also its faculty is changed its meaning and function by the intonation or situation.

The discourse function of 'Mak', the discourse mark is various as a function to mark boundary of foreground and background. supplementation of precede conversation, an attention, in order to gain time" by the situation.

'Mak' is unnecessary in meaning of sentence, but it is a necessary linguistic form to communicate the purpose or intention of discourse to the listener with effective.

Key Words: discourse mark, discourse function, spoken language, utterance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